

발간하게 되었음을니다.
그간 서려운 생활속
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우리 조상의 뿌리를
더니 조지와 자부심을
찾아 1980년 11월
가지며 11월에 大宗술가 창립
되니 후 그간의 발자취
와 앞으로 나아갈 일
들에 대하여 잠시 생
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증
할수 있는 사료들에 의
하면 우리 廉姓의 선
조들은 삼한시대부터
땅에 살았으셨으며
는 三韓功臣 郑明선
조를 始祖로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는 한 뿌 리

의 그때이 門下待
中(註: 領議政에 해당) 始니 십니다.
에 이르렀고 그명성이 그러나 우리 廉姓의
元나라까지 널리 알려 비운 고려조의 멸망
정읍니다. 있는데 그것은 고려조
忠敬公 諱悌臣 中始 과 그우열을 같이 하고
祖는 5월 너를 두셨는데 이었기 때문입니다.
는데 밤이 가推忠保節協 고려조가 멸망하기 4
贊功臣 藝文館大提學이 년전이 1388년戊

인 아기까지 무자별로
생겼는데 천행으로 나
피해서 신분을 가로
죽고 숨어살아온 廉
의 후예가 오늘날의 윤
리 일족인 것입니다.
부진지화때 날을 피
해서 살아남기 위해
사자방으로 흩어졌으

일을
그간
아셔야
합니다.
뜻을 모아
羅州 (지금은
錦城市) 都先山에
선조를
널리 묘시는
설단사(설단사)에
들어 마무리 짓고, 대종회
사무실도 마련했읍니다.
84년도엔 大同譜 편
찬사를 염두
시작해서 이

(고려조가 연전)。	서 1382년 3월 18일	신 諱國寶, 菊坡公 先祖 이며, 둘째가 忠勤翊戴戰 리贊化功臣 成均大司成 芸文館大提學 上護軍이 肅王朝부터 忠穆王廟 忠定王廟 恭愍王廟 祔 王朝까지 5대에 걸쳐 謹廷秀, 清江公이 나라에 신임이 두터웠 짜 땅이 恭愍王의 봉
---------------	----------------	---

辰年에
시킨
고려조를
멸망
사에서
세력이
일으키운
우리
중시조이
가죽50여명을포
한천여명의귀
죽였는데,이
희생했는데,
복수를위해
를戊辰之禍라고합니다.
戊辰之禍에서
온우리나라
민족은
강보에
서승리했습니다.

여 이조
시부를 중엽까지는 그
갖고 살아왔
기 때문에 龍潭·淳昌
·坡平·瑞原 등등
본관을 달리하는 廉姓이 생
있는 것같은 현상이 생
겼으나 瑞原은 오늘의
坡州의 옛이름이며, 우

우리坡州廉氏大同譜編纂事業이
1983년 5월 15일 현판식을
점으로 滿 3년 4개월 만에 완성되었
었다.
그간 倉窖들의 大同團結과 많
은 협조로 大過없이 마치 거울을
진실으로 갑시다리는 바이다.
발족 당시 運營基金難에 봉착했
을 때 本會委員長 東錫씨는 2천
50만원을 (6개월간) 常任副委員長
洪燮씨는 1천 5백만원을 (10개월간)
무이자로 借用해 주었으며, 그후
殖產金으로 자금이 축적되자
우영원위원장 吉燮씨와 상임부위원장
장정 洪燮씨는 月 15%의 利率로 이
자로 총 3천 5백만원의 자금을 增殖시켜
주었으며 (이는 本會會長團結
會議時 貸出可決) 운영원위원장
州宗門會 長吉燮씨와 부회장 樂
翊씨 兄弟들은 수차에 걸쳐從
事員들의 위로연을 베풀어 종사
원의 사기를 振作시켜 주었으며

國회의원 吉正씨는 来光時마다 大
로금을 서울宗親會長 泰勳씨를 비
롯하여 여러副會長님들인 勤訪時
마다 左位와 격려를 食宿諸位께
서는 譜所를 尋訪할때마다 많은
厚意를 베풀어 주셨으며, 특히 어려운
시기 留寓하시어 대성과를 搞揚
해주신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해수 編輯에 대한 概要를
한국 한글서적에 略述하고
한국 한글서적에 略述하고

2. 우리族譜發刊沿革

1. 甲申譜 (1704년) 單卷
2. 癸酉譜 (1753년) 2卷
3. 壬戌譜 (1802년)
4. 甲午譜 (1834년) 5卷
5. 甲辰譜 (1844년) 5卷
6. 丁巳譜 (1854년) 6卷
7. 戊辰譜 (1892년) 12卷
8. 庚寅譜 (1910년) 9卷
9. 江公派譜 (1912년) 8卷
10. 王子譜 (1912년) 5卷

1. 704년 甲申初刊譜로 그후
2. 704년 甲申會에 걸쳐 刊行한 것이다.

3. 安東樓氏의 檄門巨族이 行하였으며 우리 廉氏族譜는
4. 1476년 우리나라에서 植보의 著성 및 雜寶를 爲始로 爲終으로
5. 1476년 檄門巨族이 다투어 植보를 爲終으로 行하였으며 우리 廉氏族譜는
6. 1476년 檄門巨族이 다투어 植보를 爲終으로 行하였으며 우리 廉氏族譜는

大同譜生

坡州廉氏宗報

錄
變
變
變
變
均
東
弘
南
敏
宗
承
廉
廉
廉
廉
廉
李

坡州廉氏大宗報

우편번호 133-00
서울特別市城東區聖水
洞 1 가 656-980
電話 463-1104



〈上〉

하늘의 眞理고 땅의 造
사람들에게는 基本道德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그때韓國의 姓氏는 그數가 4百 96種이며 그에 대한 調査하면 각姓의 本質을 되는데, 韓國의 姓은 그種類를 10以下로, 또 2百 40餘姓에 이르렀다. 韓國의 姓은 그 2百 46, 林氏가 2百 16, 趙氏가 2百 10, 鄭氏가 100餘姓에 達한다. 韓國의 姓은 그 4百 96種이라 하였으나, 李朝本의 不明한 것과는 대조된다. 韓國의 姓은 그 4百 96種이라 하였으나, 李朝本의 不明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의 아는 地方官을 標準하였기 때문에 以上에 列한 大姓이니 稀
姓이니 僕姓이니 正確성이 複姓云 한것은勿論 그때當에
없는것은 所謂常人이하의 庶民階級은
稀姓 僕姓은 그만두고 大姓이니
姓이라도 記錄에 漏落되었다
그러니 多幸히 西紀 1930年
10月1日을 期하여當時 朝鮮總
督府에서 國勢調查를 實施한 韓

1975年
姓氏別 家口數集
姓氏別 人口와本
去되지않았으며 現在
統計數가 나오지 않
不 西紀 1935年
2백50姓을 가지
기로 한다. 在國勢調查에 發表된것을
備考에 記錄된 고大概 在來文書記錄을 依
면 李宜顯의 여作成한 까닭에 實際의
記錄 는 없는것이 많이 記入된것이
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在國勢調查에 發表된것을
正確한것으로 믿는수밖에 없
이다. 그리고 上述한 바와같이
國의 姓氏는 時代를 따라서
書考經에서) 이라 있다.
民國立博物院所藏明黃石參
書考經에서) 이라 있다.
을과 같다. 풍자께서 제자
인 증자에게 물기를 엿날
聖賢들은 지극한 덕과 절
요한 도로서 천하를 다스
백성을 둔 화목하고 원망하지
너는 그 道를 않게 하였느
아느냐

時代 따라 盛衰變遷·정황

廉

敏

火謎

韓國姓氏의 源流

니	이것을	數字만을列
記하기로	한다.	
所謂	大姓은	即
비롯하여	12種이라	金·李·朴을
大姓은	吳·姜·沈·安을	12種이라
여	16種이라	하였고 其次
大姓은	曹·林·呂를	비롯하
		大概가
		所謂
		名門巨族乃
網羅하지 않고	至	錄하되
京畿一圓	文武官吏等로	外에
	地方으로	어떠한
	밀히더라도	標準이 없고
	各地方을	自己의
	總	見 또는
		所見과 所聞대로
		記
		하면 2百50姓이다.
		그러나 姓氏의
		35年 統計作成完了된
		資料에依
		西紀 19
		國最初의
		姓氏資料도써
		西紀 19
0年에도	姓氏別	30年이
	調查한것은	처음이었으며
	1960年과	光復後 1
	1966年 및	1967
	1967	試圖한

集計한	2百98姓과	比하면
姓과	96姓이나	正고
西紀	19-35年	李宜顯의
百50姓과	調査統	2
그럼에	比하면	
그것은	어찌하여	
勿論	以上의	
그中間에	差異가	
	顯殊한	
	差異가	

襲滅遷이 때 많았으니 姓氏의 初創時期 即 三國初에 있어서는 漢土 移住民을 除外한 以外의 韓國本土人으로 姓을 가지것은 新羅에는 朴·昔·金 三姓의 王家를 爲始하여 李·崔·孫·鄭·裴·薛 等等 所謂 6姓이었으며 百濟에는 沙·燕·荔·鮮·菟·韓·真·國·木·昌이 있었고 古句麗 文獻通告에 依하면 柳·崔·金·申·李 4姓이 각자 本東祖玉에 속하는 朴·金·權·文·申·沈·李·趙·韓·成·安·盧·南·宋等各族이었다하고 權文

나리를
朴氏라
西羅伐이라하고
지었으니 赫居世는或
불거내(弗炬內)니 그가
을때에 햇빛이 찬란하니 世上을
잘다스리다는 뜻이오 居西子은 그
가처음 나서 일을 벌벌래 居西
干이라 하였으므로 인하여 位號
를 지은것이라 말이 있으니 居西
干은 역시 가특하게 世上을 다
스린다는 뜻이니 王者의 稱稱이
요 또는 朴居世의 밭을 (匏) 밭을 크
이름을 赫居世의 나모밭이 크
기 때문에 밤과 같으므로 밤의 音을
취하여 朴氏한 것이니 실은 이
것도 지어낸 말이오 밤은 역시
(明) 밤다는 意味라 하겠단다. 이 朴
居世는 新羅의 始祖王이오 또
韓國에서 처음 생겨난 朴氏였다.
是始祖王 朴氏로 王이 된분
新羅歷代 王中에 朴氏로
赫居世를 爲始하여 南

我이며
인 것

廉宗桓

세는 그러나 韓國의 여덟朴氏가 모두八大君에서 分派되고 赫居世의 王의 자손인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三國史東國總圖朴氏源流錄) 皆 다. 氏 지금에와서는 皆氏가 매우稀 貴하여 皆氏라면 의례에 石氏로 알거나 그렇지 않으면 皆氏도 있느냐고 의심을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實相 알고 보면 皆氏를 차이로 뜻 그대로 옛날 유명한 姓氏로 新羅時代에는 위에 말한 朴氏와 같이 당당한 王族이었다. 그의始祖는 그유명한 替脫解王이니 그가 처음으로 태생하고 또 姓을 朴氏로 지은事實에 있어 참으로 자마스리문 이야기 가 있다.

◇鶴溪影堂 吕景賢堂

이라는 것은 身體의 特性를 말하는 氣質이 다음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代로 전통을 되는 것인데, 그러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은 고대에 기록된 高麗史에 기록된 행적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祖先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氣質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차라리 서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에 기록된 高麗史에 기록된 행적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祖先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氣質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차라리 서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氣質은 어느 날 형성된 것이 아니니. 까마득한 祖上 때부터 지녀온 것이다. 아닌 한다. 그것은 高麗史에記된 祖先들의 行跡을 검토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高麗史中에 나오는 우리 始祖 梅軒 祖先의 行跡을 주제로 한 바를 弄하는지 試証은 모두

盤溪影堂이여 永遠하라

弘受廉
正散在되었는 2백여 명의
宗親이 모여 祀에
有功者에게 大宗廟에
感應牌가 瞽贈 되는 등
되는 등의 사례로 20여
의 祀에 祀에
稱頌과 이웃들의 誉美
이對象이 되었다.
特이 생각해 되는 것
은 이 말고各地에 韓
祭靈氣로 地方의 心志를
色되어 散在해 있는 우
리門中의 祠宇齋室들이
이래듯 精誠으로 保存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아직 힘이 없는 大宗廟
가宗親이 檢核을
參與로 이런 일은勿論이
育獎學弘報等
이進一步하는 契機事業
되도록 先祖님께 祈願
하였다.
나는 서풀出身으로서
여태껏 光州地方의 읍
리一家들이 全國에서
敬祖思想이 第一 힘들
줄만 알고 있었으나
天咸陽昌居地方도 州地方
도 뒷지 않게 祖上
남을 爲하는 뿌리깊은
精神에 깊은 紳銘을 받
았으며 이 地方이 限
평하고 스텁하고 福이
만 보였다. (筆者는 그
宗會事務)

論題가 하는 문제부터 생각을 해본다. 우리 일가 (廉氏)의 約 7 萬名에 이르고 사人는 곳이 전국에 걸쳐 흩어져 있다. 그들이 삶을 세상에 살았던 것은 여기에서 통틀어 기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優生學의見地에서 본다. 고하더라도 10代를 거슬러 그 기질은 그의 모친 廉氏를 포함한 그의 일가들에 계단독특한 있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가를 기질을 생각해 보려는 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 廉氏가 三國史記과 같은 古代史의 記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사설은 더불어 이땅에 삶이 온人口數가 7 萬에 순수한 것이다. 그것이 아울러 历史를 고우血統을 지켜온 것이다. 예컨대 士著民으로서 가정읍에서도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氏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사실은 僧階級들이 생기면서, 姓이나 姓이라는 事例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代로 그러했고, 앞으로 子子孫孫
이어줄 姓氏의 글자이고 보면、「**應**」이라는 字意가 머리
처럼 痴이 새겨지게 되고, 나아가서 性格化에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절대적 영
다음으로 우리 일가들의 기질
의 하나는 誠實性, 勤勉性이 아



有司에게 賞하기를 「廉郎中은 淸簡하도다」 라고 하였다。 左右司가 文移(公文書)에 署名하기를 請하면 반

生을
한결같이
白한
삶을 살아
부끄러움이
없이
점점
치신분위를
알수있다.
그려나
無私奉公、清廉潔
하늘을
우러러한
一生을
마땅히
례에

았고 胖을
에게 駐하였다。 胖이
나아가 衰乞하여 請하니
이 胖을 光光
하였다. 업신여기고 더욱 확대
拌이 嘗을 이기지 못하여

『北刺의役에梯臣이西北로군都統使가되어諸將을節度하였고軍事가돌아온을하여親히圖形하여門下侍中을살았는데幸臣金慶이謂說한바 많았으리로금納하지 아니하니與慶이원하는밀이있었는王이 말하기로金은中原에서배우고廷官의比性이高潔하여 다른분이 아니오 또한大臣의用으로서는

數十騎로
집을
불지 런면서
句圍하여
이를 베고
그
興邦이
하고자
서울에
달려들어
왔으나
光을
베었음을 헤고
大
怒하여
[云云] 일이
惡化一路를
치 않았다.
이가 목에서
보아도 우
리 先祚께서는
家奴
李光이
趙
胞의
田土를 빼앗은
것을 되돌
려주었지만
光이
다시
膀胱을
욕하는 데에서
사건이
惡화되고 끌
내는 胖이
죽이는
상황에
의하고 보니
는 家奴가
죽음을
당한 것을 보
리고 보니
죽음을

일가들이 氣質論

秦

七

模

니다」하고 事例를 갖추어 아뢰니
帝가 장자 擧用하려 하는지니
라 誣愬臣이 어머니의 痘으로 흰
써 請하여 東驛하였다.」고 기

心하는 것은 너의 알바가 아니었다. 「라고 하니 興慶이 敢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이기록을 볼때 梅軒先祖께서는 어떤 권력자에 대한 아부하지 않고 또當身하게 아부해온는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음을 알수 있고 이러한 高微한 선물은 王에서부터 百官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어 梅軒先祖의 弟傳 끝부분에 「悌臣이 이미 늦었으므로」 이라고 되어 있다.

당시의 勢道家 李仁任에게 아辱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가 그에
게 거슬려 外方으로 流配되었던
있다. 그리고 高麗史 列傳 林昭
昧條에 보면 『仁任이 옥üz성 안국
柄을 도전질하여 支黨을 根據로
하였는데 墾昧는 그心腹이 되어
다. 文臣들을 미워하며 放逐함이
싫어 높았는데 興邦도 또한 嫉恨
逐者的 속에 있었다. 뒤에 墾昧가 되어
興邦은 世家가 되었고 大族이 되었
을 때까지 그를 曹氏에 봉해졌다.

같이든다. 지금에 와서 그 사건의
是非를 가리려는 것도 아니
고 우리편의 변명을 굳이 하려는
생각도 없지만 高麗史의 記述이
朝鮮朝에 들어와서 기록된 것이고
李成桂의 易姓革命을合理化하는
것을前提로하고 썼였다는 점에
과 李成桂의 反對勢力에 대한 公
正한 評價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高麗史를 읽
는다면 그 기록 속에서도 우리先
祖의 성품이 清廉, 潔白하다는

清廉·潔白·誠實·勤勉性 돈보여
後孫예의 醫承이 주어지 粟頤

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이 기록은
말로도 梅軒先祖의 清廉성이 徵伎을 가는
때에 「將士들이 남쪽에 다투어 남의
말을 빼앗는지라 行省이 榎을 불리우고
여禁하여도 그치지 아니하니 萬葉에
間이 啟 啓하는지라 梯臣과 韶華
傑은 佛永은 풀로 그럴지 아 니하니
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장수
수들이 서로 남의 말을 빼앗는
왕궁에서도 우리 祖先是 그런 부
류에 훌쓸리지 않고 정직하게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에
과 같은 「辛曉이用事하여 悅臣이
自己에게 阿附하여

불어 議論하였는데 말을 다하여 숙김이 없었다. 家宰가 되지 무를 보내어 宮醴와 藥餌를 향하던 二十九년에 病이 들매 禱가 을 諱梯臣이 衣冠을 갖추어 이 를 뒷받고 말하기를 「公은 老臣을 雖為하여 잘 말하라.」主上께서 하여 있던 老臣을 雖為하여 있던 金及한 所以는 다만 金이 일찌감치 輔弼한 까닭이니 이에 危殆한지라 願컨대 主上께서는 날마다 더욱 삼가하여 上이 미친상을 도모하고 소서」라고 하였다.卒하니 나이 七十九요 忠敬이라 謂하였다.遺命으로 三日葬을 하였다』以上 高廟에 先祖를 봄때

역시 前日 流貶되었던 것을 戒하여 그 몸을 보존하고자 하여 있다. 그러나 仁任, 智略의 말이 높다고 했었다고 고 되어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謹與邦 先祖 역시 頓에 한 분이었으나 당시의 상황에 어쩔 수 없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다.

1. 定期總會에 對하여

85년 4월 13일(土) 오전 11에
서울종로 6가 소재 東一會館
에서 대의원 79명 중 55명과
門中 8명 등 都合 63명 참
석하여 개최하였음.

案件으로는,

**第1號案件 : 84 年度 決算
承認의件에 對하여**

가) 收入에 있어

事務實力면으로 인하여 1
천 2백 10만 원의 찬조가 이루어졌
고 반면에 분담금 미수액이
1백 45만 원이나 되어 있음.

나) 支出에 있어서는

電話料가 20만 5천 1백 20원
이 조과지출되었는바 이는族
譜事業으로 인한 것이며 다음
전세보증금과 비품비 조
과지출은 事務室 마련으로 인
한 만부득이한 것임.

議長이 방금 충무가 설명
한 것에 대한 質問을 물자
별 이의가 없어 승인결의되었음.

**第2號案件 : 85 年度 豫算
案심의 件에 對하여**

가) 收入에 있어

85년도 수입은 크게 달라
진 것은 없고 분담금에 있어
입지적여건을 감안하여 大田
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논
산은 10만 원으로 감하였으며
광고수입은 20만 원으로 책정
되어 있으나 찬조의 성격을
띄운 것이고,

나) 支出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비하여 별로 달
라진 것은 없고 事務室 마
련에 따른 事務室 관리비가
새로 계정되었고, 또한 宗報發行에 따른 宗報費가 새로
계정되었으며 그외 항목에 있
어서는多少增加된 부분이 있
으나 이는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것임.

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였
음.

중점을 말씀드리면 고려정
사에 外字 아닌 邢字로 분
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今
審族譜發行時에 邢字로 수
정함이 타당하다는 案이 온즉
議長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물
은즉 별다른 이의가 없어 邢
字로 수정하기로 결의되었음.

第5號案件 : 任員補選의

件에 對하여

本會 副會長이신 부산의圭

하도록 결의하였으며, 保寧門
中은 甲午譜(1834) 清江公派
譜와 壬戌譜에는 七世 孝齋
의 후손으로 甲午譜(1954)
에는 七世 春齋의 후손으로 표
시된데 대한 相違點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한
바 결론을 놓내리고 後日 5
人小委員會를 구성하여 다시
토의하기로 결의하였다.

▲ 제2차 任員會 단, 小委
員會는 1985년 12월 13일 大
宗會부근 장소에서 있었음.

案件은 保寧門中上系譜 再

案 수입은 分擔金에 있어 그
간 獨創을 加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累積된分이 6 개宗會
에서 무려 2백 30만 원에 달하
여 업무수행상 지장이 막대
하다는 유감表示와 더불어 이
에 대한 대책은 86년도豫算
案審議에 다투기로 하고,支出
에 있어서는 예산액에 비하
여 13.9%나 절감한것이 历
歷하므로 適正한 운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의하였
음.

다음豫算案에 대하여 수

忠敬公 할아버지와 菊坡公
東亭公, 清江公 3 혈제분의 祭
壇을 모시고 있는 都先山은 元
來 羅州門中의 所有로 되어
있었는바 이곳 地方門中들의
합의로서 지난 85년 6월 22일
자로 그 일대의 林野와 田
畠 일절을 大宗會所有로 이전
등기를 끝하였다음.

4. 宗報發行에 對하여

그간 창간호를 85년 7월 15
일자로, 第 2號를 86년 3월 29
일자로 2回 발행하였음.

部數는 3천 3백부, 代金은
무상, 배부방법은 지방은 地
域宗親會암으로, 서울地図는 서
울宗親會, 大宗會 합동작업으
로 발송하였음.

대내외적으로 내용이 他氏
宗會에 비하여 일차고格
調높다는것이 衆評이며 宗人
有志 東鎬씨의 10명의 廣告
贊助金이 2백 10만 원이나 이
루어졌음은 宗報發展에 吉兆
의 信號라고 하였으며, 또한
宗報發行事業은 大宗會의 進
一步의 업적이라고 하였음.

5. 廉吊事에 對하여

子弟婚事에 있어서는 그
간 85년 5월에 本會 총무인
弘燮씨의 女婚이, 9월에는 本
會 부회장인 庚桓씨의 男婚
이, 10월에는 本會 부회장인
吉燮씨의 女婚이, 12월에는 本
會 부회장인 東賛씨의 男婚
이, 86년 2월에는 本會 갑사
인 圭連씨의 女婚이 각각 있
었으며 이에 다시 한번 축하
드리는 바이오며, 吊事에 있
어서는 86년 2월에 本會 고
문인 吉正의원의 父親喪과
2월에 本會 부회장인 琦燮
씨의 夫人喪이 있었음. 정중
히 명복을 기원합니다.

6. 所望

鍾씨의 서거로 인하여 補選
의 필요성을 議長이 물은즉
光州의 吉燮 副會長이 現金
山會長인 琦燮씨가 적임이라
는 提請이 있다. 異議 없이 통
과결의되었음.



